ABARES 2016 농업전망 : 낙농부문 *

장 희 원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 박사과정)

1. 국제 유제품 가격 단기전망(2016~2018)

국제 유제품 가격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입에 따른 수요증가(2016/17년)와 개발도상국가들(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지속적인 유제품 수요증가(2017/18년)를 바탕으로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생산 확대로 인해 세계 우유 생산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2016/17년 치즈와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의 국제 가격은 각각 8%와, 6% 증가하여 톤당 3,663달러와 2,340달러로 전망되며, 버터와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의 국제 가격은 각각 4%, 5% 상승하여 톤당 3,510달러와 2,620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우유생산 증가와 침체된 수입 수요로 인해 2015/16년 평균 국제 유제품 가격이 3~15% 하락한 이후의 가격변동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 소득증가 전망치의 개선과 유제품 수요 증가의 결과로 2016/17년 국제 유제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와 치즈의 국제가격은 각각 13%, 10% 추가 상승할 것이며,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와 버터의 국제가격은 각각 10%,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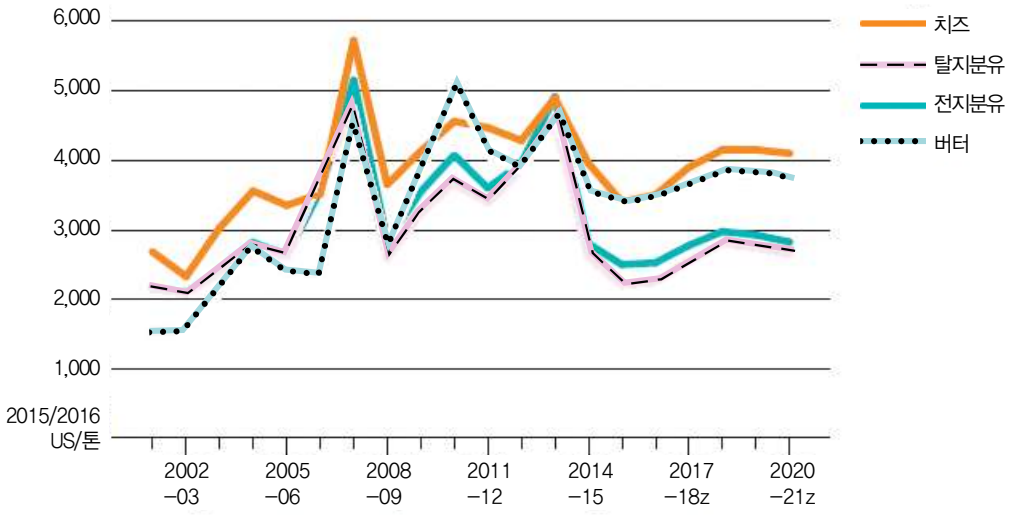
* (millelune@snu.ac.kr). 본고는 호주 농업 · 수산업 · 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6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2. 국제 유제품 가격 중기전망(2018~2021)

소득증대, 식단 변화, 개발도상국들(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인구증가에 힘입어 2020/21년까지 국제 유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치즈의 경우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19년도에도 수요증가로 인해 국제 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치즈와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의 가격은 이를 제외한 타 유제품 가격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우유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2018/19년 이후 국제 유제품 가격은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불구하고 2020/21년 국제 유제품 가격은 2015/16년 가격대비 실질적으로 평균 10~2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국제 유제품 가격 전망



주: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3. 세계 우유 공급 전망

2016/17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비의 영향으로 세계 우유 생산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주요 우유 수출지역의 생산량 확대로 인해 세계 우유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도,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

우, 가축 사육규모의 확대, 국내 수요 증가, 농장경영방식의 개선, 생산 기술의 발전의 영향으로 우유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3.1. 유럽연합

우유 산유량의 증가로 인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유럽연합(EU)의 우유생산은 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우유생산 쿼터(milk quotas) 폐지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젖소 사육두수 확대에 따라 2015/16년 우유생산 2% 증가 예상 이후의 전망치이다. 2016/17년 유럽연합(EU)의 유제품 수출은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와 버터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수출을 위한 충분한 공급 여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의 유제품 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예정대로 2016년 8월 러시아 연방의 교역 금수조치(trade embargo)가 해제된다면, 유럽연합(EU)의 유제품 수출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2020/21년까지 유럽연합(EU)의 우유생산은 연간 1%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전학적 품종개량, 로봇기술의 범용화, 우수한 목초지 관리능력, 농축사료(concentrate feeds)[1]의 광범위한 사용 등과 같은 선진 농장경영의 도입으로 우유 산유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우유생산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를 꼽을 수 있겠다. 이들은 농장과 가공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치즈생산은 유럽 내(특히 2004년 이후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13개 회원국 내) 수요의 증가로 타 유제품의 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즈, 버터, 분유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뉴질랜드

우유 직매가격의 급락으로 생산자들이 보충사료의 사용과 가축 재고율을 줄임에 따라 2015/16년 뉴질랜드 우유생산은 6% 감소가 예상된다. 뉴질랜드 우유생산의 약 95%가 유제품 수출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우유 직매가격은 타 국가들[2]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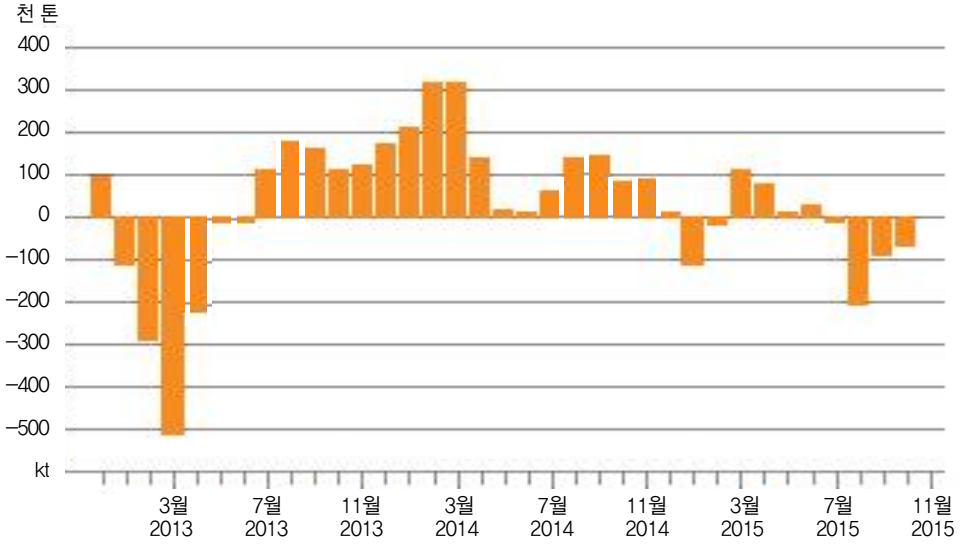
1) 전체사료의 영양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료로 더욱 희석·배합하여 보충사료(supplement)나 완전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접속일자 2016.05.23.

2) 호주의 경우 자국 우유생산의 35%가 유제품 수출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 비해 국제 유제품 가격에 덜 민감할 것으로 판단됨.

해 국제 유제품 가격변동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겨울과 초봄의 불리한 계절적 환경이 목초지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6/17년 뉴질랜드 우유 직매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뉴질랜드 젖소 사육규모는 낮은 우유직매가격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젖소의 도태로 인해 높게 형성된 쇠고기 가격의 영향으로 약 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도 우유 직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쇠고기 가격은 높게 형성됨에 따라 젖소사육 두수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 뉴질랜드 전년 월간 대비 우유생산 변화율



자료: ABARES(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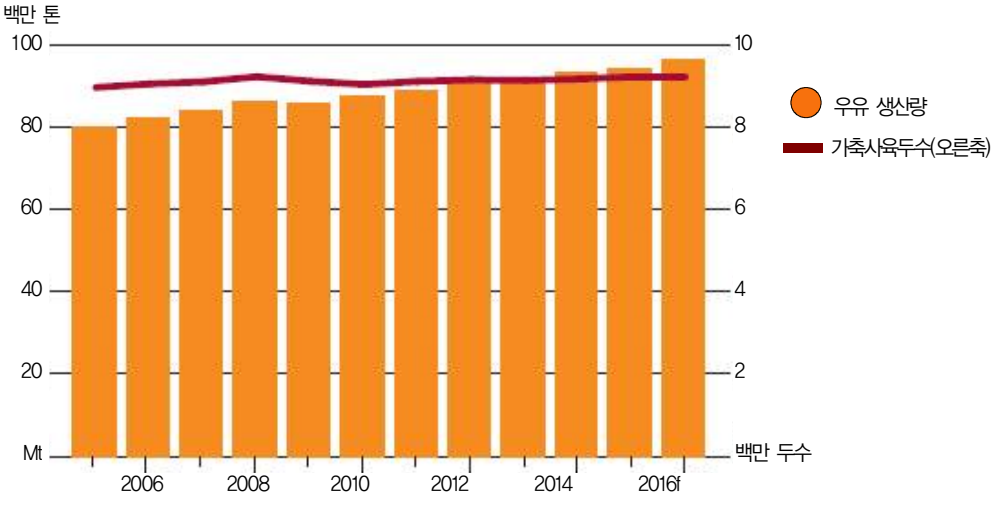
향후 몇 년간 국제 유제품 가격의 회복 전망과 함께, 전국적인 젖소 사육규모의 확장과 젖소 산유량 향상으로 뉴질랜드 우유 생산은 중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십년 전 관개작물 및 소·양의 목초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낙농업 목축지로 전환하면서 이루었던 성장률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환경문제와 높은 개발비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토지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중기적으로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와 버터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유제품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당 유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3.3. 미국

2015년 미국 우유생산은 1%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젖소 산유량 향상과 낮은 사료비의 영향으로 2%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유직매가격이 사육규모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2016년 젖소 두수는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미국 우유생산 및 젖소 사육두수 전망



주: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2015년에 버터와 치즈의 수출은 국내 수요 증가와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감소될 전망이다. 유전학적 품종개량, 우수한 목초지 관리능력, 지속적인 생산기술 발전으로 인한 젖소 산유량의 향상은 중기적으로 미국 우유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유 생산량의 증가분 중 일부는 미국 내 소비되겠지만, 이로 인해 증가하는 상당량의 유제품 생산량이 수출됨에 따라, 중기적인 미국의 유제품 수출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3.4. 아르헨티나

2015년 아르헨티나 우유 생산은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낮은 사료비의 영향으로 1% 증가가 예상된다. 2016년 우유직매가격은 국내수요의 감소와 분유 재고량의 증가에 따라 경미하게 하락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낙농분야의 지속적인 농장합병으로 아르헨티나의 우유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중·대규모 목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를 통해 보다 집약적인 생산시스템 하에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효율성이 높고 규모가 큰 생산자들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소규모 생산업자들은 산업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품의 국내소비보다 우유 생산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알제리,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교역 국가들에 대한 유제품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3.5. 브라질

브라질 우유 생산은 2015년 2% 증가 후, 2016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직매가격의 하락과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하락으로 투입재의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우유 생산 성장률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 둔화가 유제품의 국내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2016년에도 우유직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5위의 우유 생산국이지만 유제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소비에 따라 우유 생산이 증가하는 구조 하에서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가축사육 규모의 확장과 젖소 산유량의 향상으로 중기적으로 매년 약 3% 우유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유제품의 국내 소비 또한 소득의 증가와 인구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6.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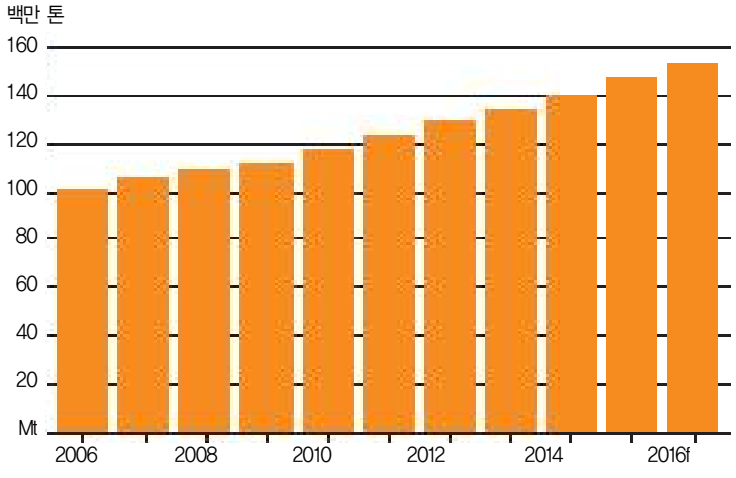
인도 우유 생산은 2015년 전년대비 5% 증가한 1억 4,700만 톤을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5%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가축사육 규모의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우유 생산국이지만, 대부분의 우유는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자작농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국내 수요의 증가로 추가적인 생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열악한 농장경영방식, 사료공급 부

족, 가축 유전, 동물 질병, 지하수 자원의 고갈, 농지감소 등의 이유로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우유 생산국가와 달리 인도 우유 생산의 56% 이상이 물소(water buffalos)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물소에서 생산된 우유는 일반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보다 지방함량이 높은 반면 생산량은 적은 편이다.

인도에서 생산된 주요 유제품으로는 버터, 기(ghee)[3], 탈지분유(skim milk powder)가 있다. 인도는 생산되는 대부분의 우유가 국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유제품 수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탈지분유는 세계 최대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소량의 유제품만이 근접국가(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중동지역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2015년 탈지분유와 버터는 각각 3만 톤, 1만 톤 수출되었으며,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인도는 유럽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우유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장경영방식의 개선과 낙농분야의 투자증가는 우유 산유량을 증가시키고 전국적인 가축사육규모를 확장시킴에 따라 우유생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도 정부는 낙농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과 유전학적 품종개량, 사료공급, 농장 기반시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림 4 인도 우유생산 전망



주: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3)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인도산 버터로, 일반적으로 물소의 젖으로 만드는데 근래에는 산양과 소의 젖으로도 생산함. 두산백과 접속일자 2016.05.23.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인구성장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인도의 유제품 국내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우유 생산량 증가분은 증가하는 유제품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되기 때문에 전망기간 내 인도의 유제품 수출규모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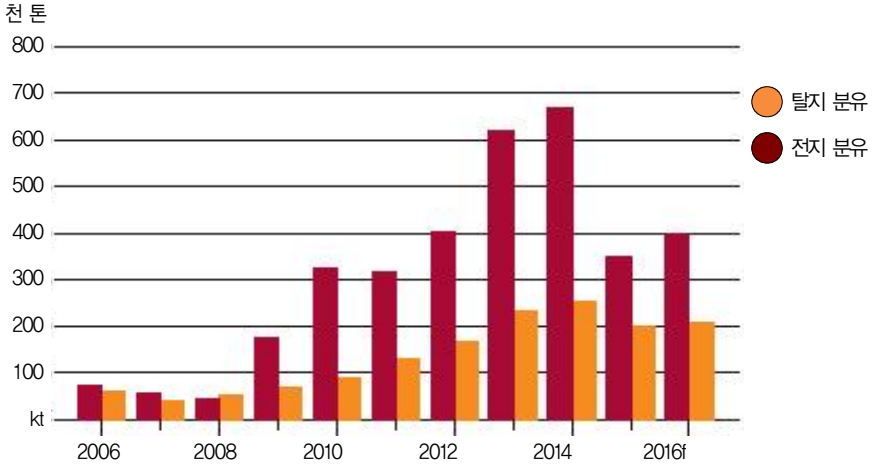
4. 세계 수요 전망

2016/17년 세계 유제품 수입의 수요는 중국의 완연한 수요 회복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중기적으로 유제품의 세계 무역규모는 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수요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4.1. 중국

2016년 초 중국의 유제품 수입수요는 분유(milk powder) 재고량과 국내 우유생산의 증가로 다소 주춤하겠지만, 2016년 말부터 분유(milk powder) 재고량이 감소하고 낮은 우유 직매가격으로 국내 우유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와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의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약 14%와 5% 증가한 40만 톤과 21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중국 분유(milk powder) 수입 전망



주: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중기적으로 향후 수입수요의 성장률은 과거 5년에 비해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학적 품종개량, 우수한 목초지 관리능력, 대규모 농장에 대한 투자가 우유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내 우유생산 규모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망기간 내 영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 수입수요는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보다 해외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아용 분유를 선호함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치즈, 버터, 분유(milk powder), 음용유(fluid milk)를 포함한 타 유제품의 수입수요도 전망기간 내 상승할 것이다.

4.2. 러시아

2016년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수요는 2015년 감소한 이후 상대적으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치즈와 버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41%,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러시아 루블화 약세와 경제 위축, 주요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금수조치에 따른 것이다. 2016년에도 유제품 수입은 러시아 루블화 약세와 경제성장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성장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는 교역 금수조치를 최소한 2016년 8월까지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러시아는 국내 생산보다 소비의 증가세가 더욱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치즈와 버터의 주요 수입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많은 생산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작농들인데, 열악한 농장 기반시설과 유전학적 품종문제로 인해 생산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내 우유생산은 2009년 이래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많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높은 운영비용과 우유가격의 하락을 못 견디고 낙농업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소규모 자작농들에 의해 하락한 생산성을 상쇄하기 위해 대규모 상업적 낙농가들에 대한 투자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망기간 내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되겠지만 우유생산 성장세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4.3.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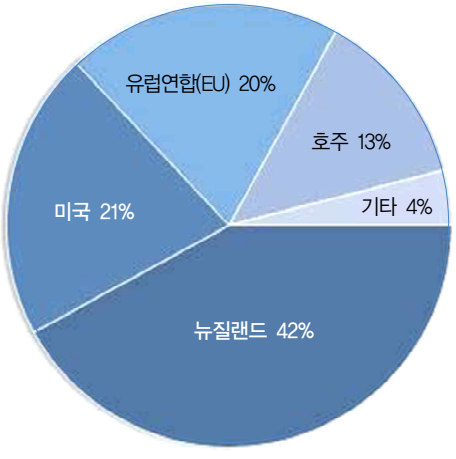
동남아시아는 주요 분유 수입지역이며, 특히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의 경우 세계 무역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 최대 탈지분유 수입국이다. 2016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입수요는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식품가공부문의 확장으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소비 증가로 인해 유제품의 수입수요의 추가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동남아시아지역의 생산 증가는 전망기간 내 높은 수입수요의 영향으로 다소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유제품 수출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4년 해당 지역 전체 수입액의 55%에 달하는 분유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유럽 및 미국과의 유제품 공급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남아시아지역과의 지리적인 근접성 이점을 살려 해당 지역의 주요 유제품 공급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림 6 2014년 아세안 지역의 주요 분유(milk powder) 수입국가 및 수입액



주: 총 36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내 무역량은 제외됨.
자료: ABARES(2016).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역 내 우유생산이 소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유제품 수입은 지역 내 수요증가에 발맞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제품 수입의 성장세는 2015년간 누적된 재고로 인해 다소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지역 내 생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수입 증가를 통해 지역 내 유제품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 최대 분유(milk powder)

수입국인 알제리는 전망기간 내 우유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전국적인 가축규모 증가를 목표로 정부차원의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수입젖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낙농설비의 수입 시 관세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가 생산 속도를 앞서면서 여전히 지역 내 주요 분유수입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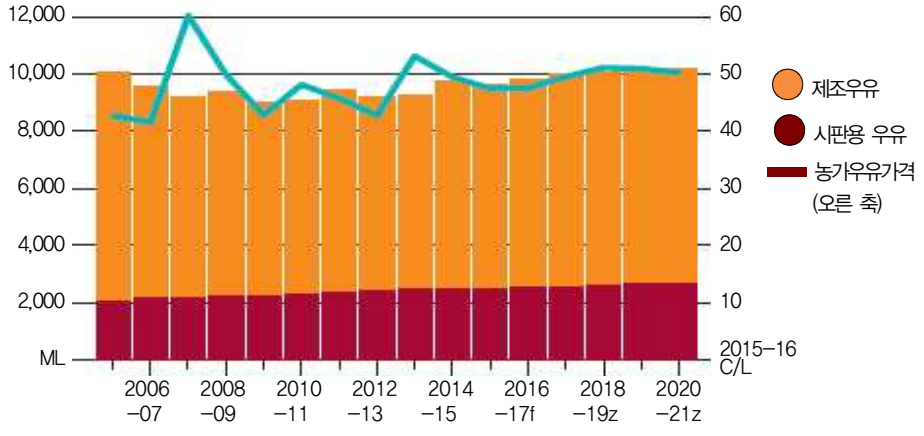
4.5. 일본

세계 2위의 치즈 수입국인 일본은 2015년 전년대비 6% 수입증가 이후, 2016년에는 전년대비 2%증가한 25만 톤의 치즈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치즈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비해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 일본은 지속적인 국내 소비 증가와 생산정체로 인해 세계 거대 치즈 수출시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5. 호주 낙농업 전망

2016/17년 호주의 우유 직매가격은 2015/16년 예상치인 리터당 47.5센트보다 3% 상승한 리터당 평균 48.7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유제품 수출업자들의 수출수익

그림 7 호주 우유 생산 및 우유직매가격 전망



주: z ABARES 예측, f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상승으로 국제 유제품 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 2018/19년 호주의 실질 우유직매가격은 리터당 51.5 센트로 상승할 것이다.(2015/16년 호주달러 기준) 전망기간 후반 우유 직매가격은 국제 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21년 실질 우유 직매가격은 2015/16년 보다 평균 약 6%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5.1. 우유 생산

2015/16년 호주 우유 생산의 1% 감소 전망 이후, 2016/17년에는 2% 증가한 98억 리터가 예상된다. 평균적인 계절적 영향을 가정하면 2016/17년 생산증가는 젖소 산유량 향상과 수출지향적인 남부지역의 가축 사육규모 확장의 결과이다. 태즈메이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및 호주 남부지역의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2015년 10~11월의 전년대비 전국적인 우유 생산규모는 감소하였다.

중기적으로 우유생산은 약 102억 리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기전망은 우유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인데, 주된 원인으로는 주로 태즈메이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지역의 증가하는 곡물과 농축사료(concentrate feed)의 사용, 유전학적 품종개량, 목초지 관리능력, 농업 기술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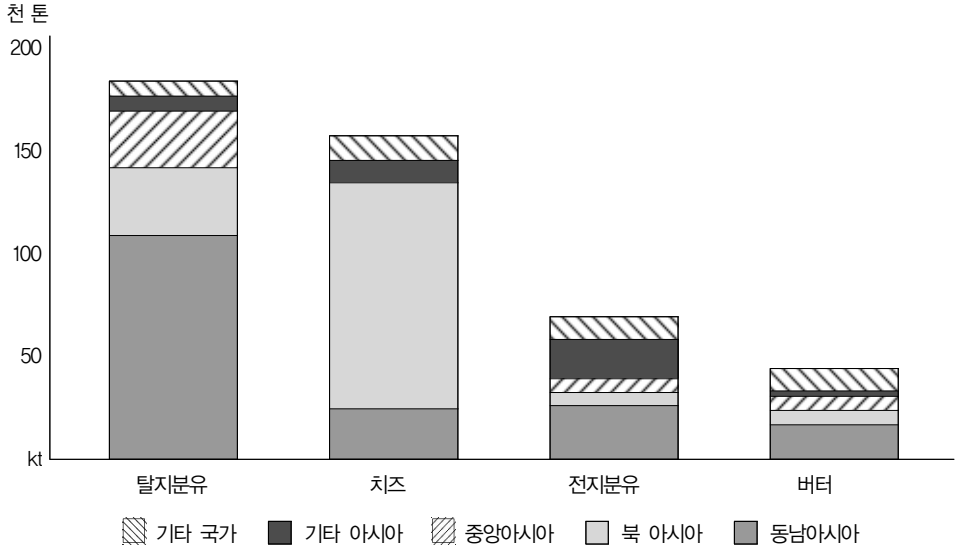
2020/21년까지 호주의 젖소사육 규모는 약 179만 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우유직매가격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지향적인 남부지역의 사육규모 확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동 기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Western Australia)와 퀸즈랜드주(Queensland)에 집중된 국내 가축사육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2. 수출

2015/16년 호주의 총 유제품수출액은 7% 감소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17년에는 국제 유제품가격 상승, 수출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4% 증가한 24억 달러로 전망된다. 유제품 수출액은 2018/19년 약 27억 달러까지(2015/16년 달러 기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망기간 말에는 국제 유제품 가격의 실질적 하락으로 인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와 북아시아 지역은 2014/15년 호주의 유제품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망기간 내 호주는 지리적 근접성 이점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특히, 동남아시아 및 북아시아)의 매우 중요한 유제품 수출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대규모 유제품 수출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 유럽과 미국과의 유제품 공급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8 2014/15년 호주 유제품 지역별 수출 현황



자료: ABARES(2016).

표 1 낙농 전망

구분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세계 창고 가격									
버터									
명목	미국달러/톤	4,498	3,483	3,375	3,510	3,786	4,021	4,074	4,073
실질a	미국달러/톤	4,573	3,516	3,375	3,450	3,650	3,800	3,775	3,700
탈지분유									
명목	미국달러/톤	4,513	2,592	2,200	2,340	2,645	2,963	2,968	2,917
실질a	미국달러/톤	4,588	2,616	2,200	2,30	2,550	2,800	2,750	2,650
치즈					3,663				
명목	미국달러/톤	4,817	3,921	3,400	3,600	4,046	4,391	4,479	4,513
실질a	미국달러/톤	4,897	3,957	3,400		3,900	4,150	4,150	4,100
호주					1,740				
젖소 수b	천 마리	1,647	1,740	1,725	5,644	1,760	1,775	1,780	1,785
착유량	L/마리	5,692	5,593	5,583		5,670	5,673	5,688	5,700

(계속)

구분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생산량					9,820				
총 우유량	ML	9,732	9,732	9,630	2,540	9,.980	10,070	10,125	10,175
시판용	ML	2,464	2,485	2,495	7,280	2,580	2,625	2,660	2,700
제조용	ML	6,908	7,247	7,135	123	7,400	7,445	7,465	7,475
버터 c	킬로톤	116	119	121	360	124	125	126	126
치즈	킬로톤	311	344	352	260	365	370	373	375
탈지분유	킬로톤	211	242	255	90	263	266	268	270
전지분유	킬로톤	126	97	90		90	89	88	88
농가우유가격									
–명목	호주센트/L	51.2	48.5	47.5	48.7	52.0	55.0	56.2	56.8
–실질a	호주센트/L	53.1	49.5	47.5	47.5	49.5	51.1	50.9	50.2
수출량									
버터 c	킬로톤	49	44	37	39	42	44	47	50
치즈	킬로톤	151	159	170	173	177	179	180	182
탈지분유	킬로톤	143	186	190	190	191	193	194	195
전지분유	킬로톤	94	69	55	52	51	51	50	50
수출가치									
명목	백만 호주달러	2,725	2,473	2,302	2,391	2,664	2,929	2,950	2,947
실질a	백만 호주달러	2,827	2,522	2,302	2,334	2,537	2,721	2,674	2,607

주: a.2015/16 미국달러 기준. b.6월 30일. c.버터오일(butrer oil), 농축버터(butter concentrate), 건조유지방(dry butterfat), 기(ghee) 등 버터 등가물 포함. d.2015/16 호주달러 기준. f.ABARES 전망. e.ABARES 추정. z.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참고문헌

ABARES. 2016.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ABARES.

참고사이트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
두산백과(www.doopedia.co.kr)